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7년 6월 18일

제07-28호

[상세 내용]

EU 경제 동향 및 전망(2007년 1분기)

김홍중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팀장 (hckim@kiep.go.kr, Tel; 3460-1036)

김군태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ktkim@kiep.go.kr, Tel; 3460-1064)

주요 내용

- ▣ 2006년에 들어와 2001년 이후 최고의 성장세를 보인 EU 경제는 2007년 1/4분기에도 성장세를 지속함.

 - EU 경제는 2006년에 0.7~1.0%의 분기별 성장률(전기대비)을 기록하였으며, 2007년 1/4분기에는 전기대비 0.6%로 다소 낮지만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임.
 - 활발한 고정투자와 수출부문이 EU의 경기회복을 주도하고 가계소비와 정부소비 지출도 순조로운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있음.
- ▣ 2007년 EU 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동향, 세계경기 상승 여부, ECB의 기준금리 추가적 인상, 회원국들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경제개혁의 추진, 주요국의 리더십 교체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등임.
- ▣ EU 경제는 2007년에도 2.8~2.9%의 안정적 성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 최근의 경기상황에 관한 각종 데이터와 설문조사에 따르면 EU와 유로지역의 경기는 여전히 양호하여 2007년에도 그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 회원국들의 긴축재정정책, 유로화 강세, 세계경기의 하락세 및 유가의 고공행진 등으로 2007년 말부터는 경기확대에 제약이 가중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1. 2006년 및 2007년 1/4분기 EU 경제 동향

- 2006년의 EU27과 유로지역¹⁾ 경제가 각각 전년대비 3.0%와 2.7% 성장하여 2001년 이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함.
 - 2006년 EU 경제의 높은 성장세는 견실한 수출부문과 기업투자 확대가 주도한 것임.
 - 총고정투자가 전년대비 5.6%, 수출이 9.2% 증가하면서 EU27 경제성장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가계소비 증가율도 5년 만에 최고치인 2.2%를 기록하며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음.
- 2007년 1/4분기 EU27 경제는 전기대비 0.6%, 전년동기대비 3.2% 성장함.
 - EU27 경제는 2006년 4/4분기에는 전기대비 0.9%, 전년동기대비 3.5% 성장이라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2006년 전체적으로는 분기별 성장률(전기대비)이 0.7~1.0%를 기록하였으나, 2007년 1/4분기에는 독일의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EU27의 성장률이 다소 떨어짐.
 - 2006년 분기별 성장률이 전기대비 0.8~1.2%를 기록하여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 독일 경제는 2007년 1/4분기에는 전기대비 0.5%로 성장속도가 낮아졌지만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3.6%를 기록하고 있어 여전히 경기확장세를 보이고 있음.
 - 1월의 부가가치세 3%포인트 인상이 가계소비지출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독일 경기확대에 제한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우려했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음.
 - 이탈리아의 2007년 1/4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0.2%에 불과, 2006년 4/4분기의 1.1%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이탈리아의 분기별 성장률은 분기 때마다 큰 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는데, 금년 1/4분기의 저성장은 지난해 4/4분기 과열된 경기가 다소 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프랑스 경제의 1/4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4/4분기와 동일한 0.5%(전기대비)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EU27 회원국 중에서도 성장속도가 낮은 편임.

1) 유로지역(Euro area)은 경제통화동맹(EMU; Economic Monetary Union)에 가입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일통화(유로화)를 사용함. 기존 회원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그리스 등 12개국이었으나 2007년 1월부터 슬로베니아가 가입하여 현재는 13개국임. 또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도 금년 1월 EU-25에 가입하여 2007년 현재 EU 회원국은 27개국으로 확대됨.

- 2001~2003년 극심한 저성장에 시달렸던 네덜란드는 2004년부터 경기가 서서히 살아나 2006년에는 확실한 회복(2.9% 성장)을 보였으며, 2007년 1/4분기에도 전기대비 0.6%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EU의 기존 회원국 가운데 가장 호조를 보였던 국가들 중 하나인 스페인과 영국의 경우, 1/4 분기에도 성장률이 각각 1.0%, 0.7%를 기록하면서 경기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표 1. EU27 및 주요 회원국들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2004년	2005년	2006년	2006년				2007년
				1/4	2/4	3/4	4/4	1/4
EU - 27	2.5	1.7	3.0	0.9	1.0	0.7	0.9	0.6
유로지역	2.0	1.4	2.7	0.8	1.0	0.6	0.9	0.6
독 일	1.2	0.9	2.7	0.8	1.2	0.8	1.0	0.5
프 랑 스	2.3	1.2	2.0	0.5	0.9	0.1	0.5	0.5
이탈리아	1.2	0.1	1.9	0.8	0.6	0.3	1.1	0.2
스 페 인	3.2	3.5	3.9	1.1	0.9	0.9	1.2	1.0
네덜란드	2.0	1.5	2.9	0.3	0.9	0.7	0.6	0.6
영 국	3.3	1.9	2.8	0.7	0.8	0.7	0.7	0.7

주: 분기별 성장률은 전기대비 기준임.

자료: Eurostat, European Commission.

- 활발한 고정투자와 수출부문이 EU27의 경기회복을 주도하고 가계소비와 정부소비 지출도 순조로운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있음.

- 2006년 4/4분기에는 가계소비와 정부소비가 각각 전기대비 0.6%, 0.4% 증가하였고, 투자도 1.5% 증가하였으며, 2006년 상반기 큰 폭으로 확대되었던 수출부문의 증가율이 3/4분기에 0.3%로 다소 정체된 후 4/4분기 들어 다시 2.9%를 기록하였음.
- EU27 전체의 2007년 1/4분기 GDP 구성요소별 증가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부 몇몇 회원국들이 공개한 국별 자료에 따르면, 1/4분기에도 기업투자가 성장의 주요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순수출이 성장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가계소비의 경우 독일이 부가가치세 인상 여파로 위축되는 등 국가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임.

표 2. EU의 분기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전기대비 증가율)

	2005년				2006년			
	1/4	2/4	3/4	4/4	1/4	2/4	3/4	4/4
가계소비	0.1	0.4	0.5	0.2	0.6	0.5	0.6	0.6
정부소비	0.3	0.7	0.8	0.2	1.1	0.2	0.6	0.4
투 자	0.5	1.3	1.4	0.7	1.2	1.9	0.9	1.5
수 출	0.0	2.0	2.6	1.4	4.0	1.3	0.3	2.9
수 입	-1.3	2.6	2.9	2.1	3.4	1.6	0.2	1.7
GDP	0.4	0.5	0.7	0.5	0.9	1.0	0.7	0.9

자료: Eurostat

- 경기회복에 힘입어 고용도 증가하고 있어 2006년 3월 8.2%에 달했던 EU27의 실업률이 2007년 3월에는 7.3%로 하락하였음.
 - 유로지역의 실업률도 같은 기간 7.2%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1993년 유로지역의 실업률 기록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임.
 - 그러나 국가별 실업률은 네덜란드의 3.4%에서 프랑스 8.7%까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즉 스페인 8.3%, 독일 7.0%, 슬로베니아 4.6%, 오스트리아 4.4%, 아일랜드 3.9% 등임.
- 4월 EU27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2%, 유로지역은 1.9%를 기록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임.
 - 유럽의 경기회복은 2006년 상반기의 고유가와 맞물려 물가불안을 심화시켜 2006년 중순에는 유로지역 물가상승률이 2.5%에 달했음.
 - 그러나 2006년 9월 이후에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안정으로 물가상승률이 2% 이하로 낮아져 유럽중앙은행(ECB)의 목표치인 2% 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 2007년 1월 배럴당 50달러였던 유가가 최근 7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물가불안 가능성이 있으나 2006년에 비하여 2007년에는 유가안정이 예상되고, 최근 실업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상승을 요구할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도 안정 기조를 보여 전반적으로 물가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 2004년부터 유럽의 주요 기업들이 임금이 저렴한 중동구권지역으로 생산공장 이전을 추진하

자, 노사 양측은 추가적인 임금지급이 없는 근로시간 연장(주당 35 → 39 또는 40시간) 및 임금인상 억제 등에 합의함.

- 2007년 4월 27일 기준으로 유로화가 1.368달러에 거래되어 1999년 1월 유로지역 출범 이래 달러 대비 최고치를 기록한 후 5월에는 1.35달러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으나 유로화 강세는 지속되고 있음.
- 유럽경제가 2001년 이래로 최고의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고 2007년에도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되는 한편,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007년 3월에 3.75%까지 인상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유로화 가치는 강세를 보이고 있음.

2. EU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

가.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상

- 유럽중앙은행(ECB)은 2003년 6월 이후 2년 반 동안 2%였던 기준금리를 2005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3.75%까지 인상하였음.
- 고유가와 원자재 및 농산물의 가격상승 등이 물가상승 압력을 높였고,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경제의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6년 8월까지 지속적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였기 때문임.
-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6년 9월 이후부터는 2% 이하로 유지되고 있으나 EU 경제가 여전히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이러한 성장세는 200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
- 이에 ECB는 금년 6월 기준금리를 4.0%로 추가 인상하였으며, 하반기에 또 한 차례의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2007년 중 기준금리는 4.25%에 이를 것으로 보임.
- 유로지역의 물가가 금년 상반기까지 2.0% 이하로 안정되어 있지만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물가불안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임.

나. 회원국의 재정적자

- 유로지역의 경기회복과 회원국들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주요 회원국의 재정적자 수준은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EU 회원국들의 긴축재정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독일, 프랑스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은 재정적자가 2003년 이래 GDP의 3%를 초과하여 EU 안정·성장협약(SGP)²⁾의 재정준칙을 위반해 왔음.
- 그러나 2006년에 와서 프랑스와 독일의 재정상황은 뚜렷이 개선되었는데, 독일의 경우 경기 상승 지속으로 인한 세수증대로 2005년 GDP의 3.2%였던 재정적자가 2006년에는 1.7%로 떨어졌으며, 프랑스도 재정적자가 2005년 GDP의 3.0%에서 2006년에는 2.5%로 낮아졌음.
- 한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의 재정 상태는 우려할 만한데, 이탈리아의 재정적자는 2005년에는 GDP의 4.2%였으나 2006년에는 오히려 4.4%로 상승하였으며, 포르투갈의 경우 같은 기간 GDP의 6.1%에서 3.9%로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안정성장협약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더욱이 이들 국가 모두 경기회복 속도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의 개선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독일의 재정상황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독일정부는 2007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를 3%포인트 인상하는 등 재정적자 축소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의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회원국들의 재정지출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 주요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혁정책

- 독일, 프랑스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연금, 건강보험 등의 복지제도 및 노동시장 개혁정책은 복지혜택 축소가 핵심 내용이며 이에 따른 미래의 불안감은 민간소비지출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메르켈 정권이 들어선 이후 독일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기업환경 제고를 위한 경제개

2)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은 회원국들의 건전한 재정균형과 낮은 공공부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재정준칙(fiscal rule)으로, 경제통화동맹(EMU) 참가국으로 하여금 매년 재정수립조건(재정적자를 경상 GDP의 3% 이내로 유지하고, 정부부채 잔액이 경상 GDP의 60% 이하가 되어야 함)을 충족시키도록 강제하고 있음.

혁 정책을 추진 중임.

- 노조의 경영 참여를 축소하는 한편 6개월이던 수습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개혁정책이 추진됨.
 -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개혁안이 2007년 2월 2일 의회에서 승인되었으며, 3월 9일에는 연금수령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2029년까지 67세로 점차 높이는 연금개혁법안도 하원을 통과하였음.
 - 또한 독일의 기업환경 제고를 위해 39%인 현 법인세 수준을 2008년까지 30% 이하로 감축하는 세법 개정안도 2007년 3월 14일 의회에서 통과됨.
- 지난 2006년 4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도입이 좌절된 바 있는 프랑스는 2007년 5월 6일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의 사르코지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 감세 정책, 주당 35시간 근로제 개편, 사회복지 개혁 등의 경제개혁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노동시장 유연화의 경우, 사르코지 대통령은 고용주들이 피고용자들의 채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과 이를 위해 현재의 종신제보다 유연한 단기계약제 도입을 제안함.
 - 최소한(minimum)의 사회보장이 근로의 의지를 높인다는 주장을 통해 볼 때 사회복지 축소가 예상되며, 주당 35시간 근로제 폐지 및 2012년까지 전체 세금부담을 4% 줄이는 등의 공약을 정책화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주요국들의 경제개혁은 사회보장 축소뿐만 아니라 친기업적 정책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확대와 고용증가 또한 기대할 수 있음.
- 독일의 경우, 슈뢰더 전임 총리의 Agenda 2010 그리고 메르켈 현 총리의 개혁정책 추진이 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시켜 독일경제 회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라. 독일, 2007년 상반기 EU 의장국 수임

- 독일이 2007년 1월부터 6개월간 EU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메르켈 총리의 국제적 입지와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 영국에서는 금년 5월 블레어 총리가 사임을 표명, 블레어 재무장관이 차기 총리로 확정되었

으며, 프랑스에서도 5월 대선을 통해 사르코지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등 유럽의 주요국 리더십이 최근 교체됨에 따라 메르켈 독일총리의 EU내 리더십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 메르켈은 EU의 결속력 강화 및 경제개혁 추진을 강조하고 있어 EU 헌법 부활 및 리스본 전략의 강화 등이 예상된다.
- 금년내 EU 헌법 부활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2006년 높은 경제적 성과를 거둔 독일경제 회복이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 개혁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어 리스본 전략을 중심으로 한 EU와 독일의 경제개혁 추진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마. 기타 요인

- 경기회복세에 따른 고용증가와 이로 인한 임금의 완만한 상승세가 나타난다면 구매력 증가로 인해 가계소비 지출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음.
- 반면에 유로화 강세 현상 및 세계경기 확대의 부진 등이 발생할 경우 이는 유로지역의 경쟁력 및 수출에 부담을 줘 유럽기업의 투자와 고용 위축을 불러 올 위험이 있음.
- 그러나 유가불안 현상과 세계경기의 부진, 그리고 유로화 강세 등은 EU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이로 인하여 EU 경제가 급격한 경기하강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정치적 불확실성도 EU 경기확장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는바, 독일의 대연정내의 견불일치, 프랑스 대선 후 경제개혁을 둘러싼 갈등 증대 등은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3. EU 경제 전망

- 최근의 경기상황에 관한 각종 데이터와 설문조사에 따르면 EU와 유로지역의 경기는 여전히 양호하여 2007년에도 그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독일의 연방산업통상부의 2007년 1~2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년 독일기업의 투자계획이 13% 증가할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8~9월의 7%보다 높은 수치임.

- 또한 프랑스 경제통계청(INSEE)의 4월 조사에서도 기업의 2007년 투자가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6년의 2%를 능가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2005년 8월 최저치에서 점차 상승하여 금년 4월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높은 수준의 임금상승을 예상하기 어려운데다가 주요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개혁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가계소비의 급격한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움.
- 2007년 EU27의 경제성장률은 2.8~2.9%, 유로지역은 2.6~2.7%로 예상됨.
- 2006년도에 호조를 보였던 EU27 경제는 기준금리 인상, 회원국들의 긴축재정정책, 유로화 강세, 세계경기의 하락세 및 유가의 고공행진 등으로 2007년 말부터는 경기확대에 제약이 점차 가해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2008년 EU27 경제성장률은 2.4~2.7%, 유로지역은 2.1~2.5% 정도로 2007년에 비하여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표 3. EU 경제성장률 예측치

(단위: %)

예측기관 연 도	EU 집행위원회		Global Insight		OECD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EU27	2.9	2.7	2.8	2.4	-	-
유로지역	2.6	2.5	2.6	2.1	2.7	2.3
독 일	2.5	2.4	2.6	2.1	2.9	2.2
프 랑 스	2.4	2.3	2.1	1.7	2.2	2.2
이탈리아	1.9	1.7	1.9	1.5	2.0	1.7
네덜란드	2.8	2.6	2.5	2.1	2.9	2.9
스 페 인	3.7	3.4	3.6	2.8	3.6	2.7
영 국	2.8	2.5	2.7	2.5	2.7	2.5

자료: European Commission, *Economic forecast*, (spring, 2007); Global Insight, *Online Analysis*, (May, 2007); OECD, *OECD Economic Outlook*, Preliminary Edition, (May, 2007).